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묵묵히 척박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생명의 물을 주며 2026년 두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뒤돌아 보는 이 시간, 걸음 걸음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햇볕도 주시고 폭풍 중에도 길을 열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묵묵히 저희들의 사역에 기도와 격려로 늘 동행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겨진 씨앗이 폭풍을 뚫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을 나누며 주님의 기쁨도 함께 전합니다.

1. 모팻 신학대학 강의 및 사역 훈련



이번 학기는 모팻 신학대학의 학사일정 중 가장 알찬 기간이다. 1년 동안 성경공부와 사역 보고로 함께 성장해온 멘토링 소그룹 학생들, 3년 동안의 모든 사역 훈련의 열매를 채플설교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며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3학년 졸업반 학생들, 그리고 강의와 사역 실제로 1년 동안의 성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1, 2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상 찾아온 학교에서의 생활. 강의와 레포트 작업 뿐 만이 아니라 매주 병원, 학교, 교도소, 고아원, 등 여러가지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 사역의 실재를 경험하고 익혀가는 훈련이라서 고되고 지치기 일쑤이지만 때마다 마음 줄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이들에게 주신 1년 동안의 성장은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숙연하기까지 하다. 이 훈련을 위해 정선교사는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와 강해설교의 실재를 3개 학급 모두에게 각각 가르쳤고, 김선교

사는 기독교 교육의 실재를 1학년 학생들에게 훈련하였다.



또한 정선교사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과 다양한 교제 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스포츠 선교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여러 축구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경기를 할 때 말씀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팻 문화축제 때는 자신들이 속한 종족의 문화를 선보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문화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 모팻 마더와이즈 사역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서 모팻의 훈련을 받으며 부르심에 응답한 여인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들이 마더와이즈 회복 프로그램을 훈련받고 주님의 신부됨의 메시지 앞에 기뻐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 선교사는 아버지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들이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땅의 억눌린 여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한다.

3. 생명수 방학성경캠프와 주일학교 프로그램



지난 4월 3주간의 방학 동안 생명수 어린이 청소년 성경캠프를 실시하였다. 방학이 되면 슬럼의 공터에서 일터로 떠난 부모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방황하는 아이들이 교회로 모두 모여 영육의 양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팀과 청소년 팀이 서로 다른 시간에 모여 더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여러가지 액티비티와 영화상영 등을 통해 격려 받고 도전 받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생명수 주일학교에서는 한 선교단체에서 AI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전 세계 선교지의 언어로 매주 새롭게 제작하여 보내주는 스와힐리어 영상 성경공부를 통해 신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중이다. 매주마다 성경암송도 꾸준히 훈련하고, 준비한 상도 나누며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 한편 케냐의 헌신된 현지인 젊은 사역자들이 AI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의 상황에 맞는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 곧 출판을 기다리고 있어 몹시 기대하고 있다. 김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모

팻의 티칭 사역자들에게 너무도 반가운 교육자료가 주어지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프리카 전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되길 기도한다.

4. 생명수 홀리 라이트 유치원



3번의 졸업생을 배출한 홀리라이트 유치원은 케냐의 새로운 학제와 몬테소리 교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교실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로이채플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진다. 아이들이 슬럼의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으며 지낼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새롭게 훈련 받은 존과 미리암 선생은 몬테소리 칼리지 인턴쉽 평가를 무사히 치르고 어엿한 선생님이로 각 반의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어 감사하다. 매주 채플을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바른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홀리라이트 어린 생명들의 앞길에 주님의 밝은 빛의 인도하심과 공급이 있기를 소망하며 선생님들은 루시목사와 함께 매주 기도모임을 가지며 간절히 기도한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30여명의 모팻의 졸업생들이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사역지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길 기도하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은 알맞은 사역지와 잘 연결되어 기쁘게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2. 슬럼의 생명수 교회의 여러가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루시와 이스라엘 목사 부부가 슬럼의 여러가지 잡음들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리는 충성된 사역자로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